14 2016년 4월 15일 금요일 제20224호 광주일보

플랫폼을 알면 미래 세상이 보인다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다

오바라 가즈히로 지음

'플랫폼'(platform)은 원래 정거장을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IT 기업의 급성장과 함께 '다수의 사용자 들이 참여해 특정한 가치를 교환할 수 있 도록 구축된 환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

오늘날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이 거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플랫폼 구축에 성공을 했기 때문 이다. 일례로 페이스북 회원수는 13억 인 구를 거느린 중국의 그것을 능가한다. 월 사용자 수 역시 15억 명을 넘는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국경, 인종, 성별 도 차별받지 않는 초국가적 플랫폼이 등 장한 것이다. 호사가들은 21세기의 신제 국이라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플랫폼을 알면 다가오는 미래 세상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 나 왔다. '나는 왜 구글을 그만두고 라쿠텐으 로 갔을까'의 저자 오바라 가즈히로가 펴 낸 '플랫폼이다'는 플랫폼이 세상을 어떻

게 바꾸었는지를 들여다본다. 저자는 '역 사상 최대의 플랫폼은 국가'라고 말할 정 도로 영향력에 주목을 한다.

저자는 플랫폼 운영에 중요한 요소 가 운데 하나를 '공유가치관'으로 본다. 기업 이 지닌 조직, 시스템, 전략과 사원의 일하 는 방식의 근원이 되는 스타일, 스킬과 같 은 요소의 중심에 '공유가치관'이 있다는 것이다.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와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공유가치관은 고유의 경 쟁력 가운데 하나다. 사실 애플과 구글의 대결도 근본적으로는 공유가치관을 바탕 으로 서로의 서비스 영역을 둘러싸고 격돌

한편 플랫폼이 종종 혼란으로 인해 다 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사회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가 능성도 지닌다. IT의 역사가 눈앞의 문제 와 당면과제를 파악하면서도 미래를 낙관 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어져왔다는 측면 만 봐도 그렇다.

"테크놀로지는 나에게 힘을 주었다. 만 일 내가 경험한 것이나 진보적으로 살아가 는 방식,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등이 조금 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영광

> 〈한스미디어·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정신부터 분자까지 낱낱이 파헤친 뇌과학 보고서

기억의 비밀

에릭 캔델·래리 스콰이어 지음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 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금 도 서양철학 가운데 널리 인용되는 명언

그러나 이 말에 반기를 드는 이가 있 다. 달리 말하면 위 문장(의미)이 틀렸다 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정신 활동은 신 체 활동과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라고 보 았다. 그는 "정신과 신체 사이에 존재한 다고 스스로 믿는 분리를 강조하기 위해 위 문장을 진술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생물학자들은 데카르트 견해 와 다르다. 그들은 "정신의 모든 활동이 우리 몸의 특화된 부분, 곧 뇌에서 비롯 된다"는 관점을 취한다. 데카르트의 말 은 뒤집어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 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고. 다시 이 말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 면 "나는 뇌를 가졌다, 고로 생각한다." 로 바꿔도 무방하다.

가끔 기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기억 하는지 그 실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다. 때마침 기억을 낱낱이 파헤 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컬럼비아 대 학 신경생물학 및 행동센터 소장인 에릭 캔델과 캘리포니아대학 의과대 교수인 래리 스콰이어가 펴낸 '기억의 비밀'은 정신부터 분자까지 아우른 뇌과학 보고

저자들은 기억의 작동에 대해, 신경세 포들과 뇌 시스템의 작동에 대해 지금까 지 과학이 밝혀낸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룬다.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경험을 기록 하며, 각기 다른 형태의 기억들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뇌손상으로 기억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기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 억은 서술기억과 비서술기억으로 구분된 다는 점이다. 전자는 말이나 시각적 이미 지로 불러낼 수 있는 정보(언어, 음악 등) 이며 후자는 회상이 아닌 행동의 변화(운 동 기술 등)로 표출되는 어떤 것이다.

서술기억은 의식적으로 회상되지만 비서술기억은 무의식적으로 실행된다. 지난 휴가 때의 일이나 어제 나눈 대화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비서술기억은 몸으로 익힌 것을 저장하는 기억이다.

서술기억과 비서술기억은 고유한 신 경 시스템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안쪽 관자엽 구조물이 손상돼 회상할 수 없는 환자라도 거울로 손과 별을 보면서 별의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솜씨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억에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있 다. 일시적인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단기기억인데 반해, 장기기억은 유전자 와 단백질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달리 말하면 단기기억은 기존의 단백질을 변 형하고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성취되지

에드바르트 뭉크 작 '물가에서 춤추다'(1930년경). 뭉크는 인간의 감정과 연약함을 상징하기 위해 왜곡된 윤곽과 따스한 색을 이용했는데, 그림 속 물가에서 춤추는 사 람들은 저장된 기억을 이용해 학습된 동작을 표출한다.

만, 장기기억은 새로운 단백질의 합성과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필요하다. 복잡한 신호 전달 과정을 거쳐 새로운 시냅스 (뉴런과 뉴런의 접속부위) 형성돼야 장 기기억으로 장착된다.

책은 이처럼 기억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와 인지 심리학적 연 구를 토대로 서술돼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들은 기억이라는 밑그림을 크게 그 린 다음, 디테일한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식으로 그림을 완성해간다.

기억은 아직도 미지의 세계다. 저자들 은 기억에 관한, 과학이 밝혀낸 사실을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지만 '기억'이라는 현상을 온전히 파악하기에는 갈 길이 멀 다. "기억이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보잘 것 없 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요 한 것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일 수가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우리가 내뱉 는 모든 단어,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활 동-심지어 우리의 자아감과 타인과의 유대감-은 우리의 경험을 기록하고 저 장하는 뇌의 능력, 곧 기억 덕분에 가능 하다. 기억은 우리의 정신적 삶을 하나 로 연결하는 접착제요.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를 지탱하고 우리가 사는 내내 그 역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해주는 비계(飛階·scaffolding)다."

〈해나무·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의문의 죽음과 진실찾기



안녕 테레사

존 차 지음

1982년 뉴욕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 비디 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뒤를 이을 차세대 예술가로 주목받던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테레사 차(한국명 차학경)가 싸늘한 시신 으로 발견됐다.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한 것이다. 경찰은 곧 빌딩의 관리원을 범인 으로 지목하고 기소해 재판에 들어간다.

범인으로 지목된 남자의 강간 전력, 그 날의 행적, 시신에서 발견된 흔적 등 모든 정황들은 그 남자가 범인임을 가리킨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와 증인이 없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만다.

진범을 눈앞에 두고도 진실은 밝혀지지 못하고 범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된다. 그녀 의 친오빠인 존 차는 수사관들과 함께 직

접 증거를 찾아 나서고, 결국 결정적 증거 로 진실을 밝혀낸다.

'안녕 테레사'는 잔인하게 살해당한 테 레사 차의 죽음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을 그린 법정 실화소설이다. 작품을 쓴 존 차는 제37회 PEN 번역 문학상과 Korea Times 번역상을 수상한 재미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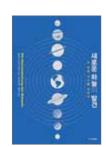
소설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끈질긴 추 적과 법정 공방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 혀 있다. 크리에이티브 논픽션(creative nonfiction)이라 불릴 만큼 변호인들의 치밀한 두뇌게임이 전개된다.

억울하고 원통한 죽임을 당한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테레사 차의 사후 10년 동안 존 차는 동생의 처참 한 죽음과 그리움, 그리고 동생의 천재적 인 예술행위를 알레고리로 엮은 이야기로 구상했다.

마지막 책장을 덮는 순간 남겨진 자들의 애절함과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가 다가옴 을 느끼게 된다.

> 〈문학세계사·1만3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두 번째 지구'가 될 행성을 찾아라



새로운 하늘의 발견

프라이슈테터 지음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인 레우키포스와 그의 제자 데모크리토스는 이런 생각을 했다. '세상 밖에도 무언가 존재하는가?' '이런 모든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 이같이 오래전 인류는 밤하늘의 별 을 보며 어렴풋이나마 낯선 세상, 새로운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떠올렸다.

고대의 우주관부터 현대 천문학의 눈

부신 성과까지, 인류가 새로운 세상을 찾아 걸어온 발자취를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 나왔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우주과학을 가르치는 플로리안 프라이 슈테터가 펴낸 '새로운 하늘의 발견'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천문학 세계에 초점 을 맞춘다. 현대의 우주과학은 눈에 보 이지 않는 행성을 발견하고 '두 번째 지 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행성을 점친다. 저자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머잖은 장래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에 따 르면 인류는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거나 혹은 외계 생명체에 발견당할 것이다.

〈재승출판·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백범 활동상 쉽게 알 수 있게 주석·지도 첨부



정본 백범일지

김 구 지음

평생을 겨레 사랑으로 일관한 백범 김 구 선생의 친필 원고를 그대로 복원한 최 초의 책 '정본 백범일지'가 발간 20여년 만에 개정판으로 재출간됐다

학민사의 '정본 백범일지'는 기존의 간행본이 친필본을 윤문하는 과정에서 삭제하고 고친 부분을 원래대로 복원한 것으로, 이번 개정판에서는 가독성을 높

이기 위해 보다 시각적인 편집에 유려한 글자체를 갖췄다.

용어, 사건, 인물들에 1000여개의 주 석을 붙여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했으 며, 옛 지명을 대부분 고증하고 백범의 활동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려 넣었다. 또 친필 원고와 대조해 정 확한 '백범연보'를 작성하고 백범일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총망라한 '찾아보기' 를 수록했다. 특히 '백범일지'라는 텍스 트 자체에 대해 먼저 이해한 후 내용으 로 들어가는 것이 '백범일지 읽기'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 김학민·이병갑 두 주해자들의 저본에 대한 글을 책 맨 앞 〈학민사·1만5800원〉 으로 옮겼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 핀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 검색



시술후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이수채 010-3600-9955



